

	인도 (뉴 델 리) 사 무 소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해외동향보고서	담당자	하 승 창 소 장
		일 시	2024.11.

CEPA Insight

- 인도 공략하는 포스코, 성장성에 베팅
- 젠슨 황이 공 들이는 인도, “미래에 AI 수출국 될 것”

■ 포스코의 인도 일관제철소 건설 추진, 10조원 규모 프로젝트

포스코그룹이 진입 장벽이 높은 인도 시장을 현지 1위 철강사인 JSW와의 협력을 통해 공략 계획

- 포스코는 인도 동부 오디샤(Odisha) 주(州)에 연간 500만t 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 이번 일관제철소 건설은 인도 1위 철강사인 JSW 스틸과의 협력으로 이뤄지며, 향후 추가 확장 방안도 검토. 업계에서는 연 500만t 규모의 생산능력을 고려할 때, 해당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가 10조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 포스코는 JSW와 50대 50 비율로 투자할 예정.
- 포스코는 앞서 4차례나 인도 현지 일관제철소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주민·지방정부와의 협의 실패, 현지 합작 회사와의 조율 실패 탓으로 번번이 최종 설립에는 실패. JSW는 인도 전역에서 철강,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인도 대표 기업. JSW는 인도 내에 일관제철소 4개를 운영 중이고 지난해 약 2,900만t의 조강생산 능력을 확보해 타타스틸의 생산 능력을 추월. JSW는 2030년까지 오디샤주, 안드라 프레데시주 등에 추가적인 제철소를 건설, 확장해 5,000만t으로 생산 능력을 늘려 성장하는 인도 내 수요와 더불어 글로벌 철강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
- 향후 배터리 소재 협력도 기대되는 분야. JSW는 최근 중국 상하이자동차로부터 MG모터스 인도 법인 지분을 인수하는 등 전기차·배터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인도의 전기차 판매량은 작년 대비 66% 증가해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

인도 픽한 포스코...이유는 '성장성'

- 인도는 다국적 기업의 무덤으로 꼽힘. 인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약 1만 1000개의 외국기업이 인도에 진출해 2,783개의 기업이 인도 산업계에서 떠났음. 열악한 물류·통신

인프라와 여전히 자국 내수 기업 중심의 국가·지방정부 정책이 토종기업과의 경쟁을 어렵게 만들.

- 이런 현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철강 경쟁력 재건'을 외친 포스코가 인도를 택한 이유는 성장성 때문. 인도는 203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6.7%가 전망되는 세계 최대 성장 시장. WSD에 따르면 인도 철강 수요는 연평균 7%씩 증가해 2030년 1억9,000만t에 이를 것으로 예상.

(출처: 아시아경제 2024.10.30.)

■ 젠슨 황이 공들이는 인도, "미래 AI 수출국 될 것"

- 4억명 '인구대국' 인도가 스스로 세계 반도체 시장의 '허브'가 되겠다 야심 찬 목표를 세우고 '거목'들을 자신들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음. 오랜 기간 인도 정부의 '러브콜'을 받아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됨. 30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칩 시장에서 앞서가고 있는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도 뭄바이를 직접 찾아 'AI 서밋 인디아'에서 기조연설을 함. 황 CEO는 "인도가 자체적인 AI 인프라를 구축 하는게 중요하다"며 "그동안 인도는 소프트웨어를 생산, 수출해왔는데 미래에는 AI를 수출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봄. 이어 "인도의 기술인재는 타의 추종을 불허 한다"고 강조.
- 엔비디아는 인도 전역에 6개 지사를 두고 직원 4,000여명이 일하는 등 인도 시장에 공을 들여왔음.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에는 1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고 여기에 차세대 AI 칩 '블랙웰'을 탑재할 예정. AI 모델 구축을 위해 인도 기업들과의 협력도 늘려갈 것이라고 밝힘. 황 CEO가 공식 석상에서 인도에 비상한 관심을 보인 만큼 반도체 기업들도 인도 진출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음. 일각에선 이를 노리고 황 CEO의 방문에 공을 들여온 인도가 분위기를 발판 삼아 글로벌기업에 반도체 공장 설립 '콜'에 대대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옴.

강해질 삼성·SK 향한 러브콜

- 우리 업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는 인도 정부의 요청이 강해질지 지켜보고 있음. 삼성전자는 인도의 제안을 지속적으로 받았음. 2014년 주인도 한국대사관을 통해 공장 건립을 처음 요청받고 거절했지만, 인도는 기회가 될 때마다 삼성전자를 설득하고 있음. 대신 R&D센터 두 곳을 벵갈루루에 세워 운영 중. 인도 측은 SK하이닉스에도 강하게 생산 투자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도를 쉽게 좌시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는 건 많은 경쟁기업이 이미 깃발을 꽂고 있어서임. 두 회사와 HBM에서 치열히 경쟁하고 있는 미국 마이크론은 인도의 첫 반도체 제품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음. 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인도 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지 방송에서 "오는 12월까지 첫 인도산 반도체가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인도 구자라트주에서 짓고 있는 마이크론 공장을 가리킨 것. 마이크론은 27억5,000만달러(약 3억7,000억원)를 투자해 구자라트주에 D램, 낸드플래시 조립공장을 짓고 있음. 다만 이 공장은 생산보다 조립에 맞춰져 있다. 첫 생산공장은 2026년에 지어질 것으로 보임.

-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TSMC(대만)가 인도 타타그룹과 협력해 같은 주에 대규모 파운드리 공장을 지을 예정. 110억 달러(약 14조7,500억원)가 투입. R&D센터로는 삼성전자와 함께 인텔, 화웨이가 인도에 진출. AMD는 2028년까지 4억 달러(약 5,300억원)를 투자해 벵갈루루 지역에 반도체 디자인 센터를 설립할 예정. 자동차용 반도체 기업 NXP(네덜란드)는 10억 달러(약 1조3,400억원)를 투자해 인도에 R&D 시설과 인력을 확대하려 함. 커트 시버스 NXP 최고경영자(CEO)는 "인도 반도체 시장이 2026년까지 630억 달러(약 84조 5,4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봄. (출처: 아시아경제 2024.10.30.)

■ 시사점

- 인도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세계 최대규모의 시장이라는 점은 명확한 사실임. 국제적인 기업들이 시장성, 값싼 노동력,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인도 시장에 앞다투어 진출하고 있음. 도내기업이 진출하기 위해 다양한 제약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도 시장과 산업에 대한 조사를 꾸준히 진행 시켜 나가는 것이 요구됨. 인도 시장의 특수한 상황들, 가격 적으로 민감한 시장인 점, 완제품 수출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통관에 대한 어려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장기적으로 전망 있는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가 될 것임. 끝.